

과거시제 기술에 대한 표현론적 접근*

이 흥 식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 은 경

(홍익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본고는 의미에서 형식으로 향하는 문법 기술의 측면에서 한국어 과거시제를 기술해 보았다. 먼저 과거를 표현하는 형식들을 확인해서 목록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다양한 형식들이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들 형식에는 통사적 구성에 따른 차이에 의한 것들도 있었고 상이나 양태의 측면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형식들도 있었다.

다음으로 과거라는 의미를 더 나누어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현론적 어휘 의미론에서는 어휘장 또는 의미장을 설정해서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하위의미를 확인하고 이들을 표현하는 형식을 찾아서 기술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본고에서는 과거의 하위의미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았다.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한 과거의 하위의미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상과 양태의 의미를 배제하고 과거의 의미를 세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순과거: -었-, -었었-, -은-, -던. 단절과거: -었었-, -었던. 과거에서의 과거: -었었-, -었-. 인식시의 과거: -더-. 반사실적 과거: -었-, -었었-(조건절), -었-, -을걸(귀결절). 과거 사실에 대한 과거의 인식: -었다-

주제어 : 과거시제, 표현론, 해석론, 의미장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1. 머리말

본고는 표현론에 기반한 시제 연구, 특히 표현론적 접근에 따른 과거 시제 기술을 시도하고자 한다.¹⁾ 2010년 이후에 한국어학에 표현론적 연구를 표방한 논저가 많이 나타났다.²⁾ 이들 논저의 대부분이 명시적으로 ‘표현론적’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제시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표현론적인 입장이 해석론적 논의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제시한 논저는 많지 않다.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만 제시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식으로 서술이 이루어진 듯하다. 본고는 시제 연구에서 표현론적 접근에 의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과거시제를 대상으로 표현론적 기술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표현론적 접근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해 본다는 점에서 표현론적 시제 연구의 시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학에서 문법 범주에 대한 표현론적 접근에 의한 연구는 시제, 상, 양태를 다룬 박진호(2011)에서 시작한다. 박진호(2011)에서는 시제 연구에 표현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기술만 제시했으나 이후의 한국어학의 통사론 연구는 박진호(2011)을 인용하면서 표현론적 접근에 의한 문법 연구에 대해 언급했다. 본고에서는 박진호(2011)의 원론적인 기술을 실제 시제 기술에 도입하여 표현론적 접근에 의한 시제 기술을 시도하고자 한다.

박진호(2011)에는 표현론적 접근에 의한 시제 기술의 긍정적인 전망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표현론적 접근에 의한 시제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해 보고자

1) ‘표현론’은 ‘onomasiology’의 번역어로서 ‘명칭론, 명의로론, 표현론’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된다(이홍식·이은경 2023:4).

2) 문법론에서는 표현론이 2010년대 이후에 나타났지만 개념사 연구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에 표현론적 연구가 시도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표현론적 접근의 개관은 이현근(2019), 이홍식·이은경(2023) 참고.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표현론적 접근에 의한 언어 연구, 특히 어휘의 미론의 표현론적 연구 방법론을 도입해서 한국어 과거시제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II. 표현론적 접근에 대한 개관³⁾

‘표현론(onomasiology)’은 Geeraerts(2010:23)에 따르면 Zauner(1903)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Geeraerts(2010:23)은 ‘표현론’과 ‘해석론’을 언어학 영어 용어에서는 찾기 어렵지만 유럽의 어휘론 연구에서는 표현론과 해석론의 구별이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한다. 실제로 언어학사전에 표현론(onomasiology)이라는 표제어가 실려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사전에서 이 단어를 표제어로 올려서 뜻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 단어가 언어학의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에서의 표현론에 관한 정의는 의미와 형식의 대응 관계의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하는 정도의 정보를 제공한다. 의미에서 형식으로 향하는 연구를 표현론이라고 하는 듯하다. 이정민·배영남(1987:624)에서는 표제어인 ‘onomasiology’에 대해 다음과 같이 뜻을 제시했다.

onomasiology [名義論] 외부 세계의 어떤 사물 또는 개념에 대응되는 언어 표현, 어휘 형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연구하는 분야. 예를 들어, 인목나무의 이름이 무엇무엇인가를 조사하는 따위.

이정민·배영남(1987:807)에는 해석론에 해당하는 ‘semasiology’도 표제어로 올라 있는데 표제어인 semasiology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3) 표현론에 관한 개관은 이홍식·이은경(2023) 참조.

뜻풀이를 제시했다.

semasiology [意味學] <의미> 意味論(semantics)과 같다. 현재 보통 semantics로 불림.

이렇게 보면 이정민·배영남(1987)에서는 이 두 표제어를 대칭이 되는 용어로 보지 않고 표현론을 의미론의 한 분야 정도로 파악한 것이 아닌가 한다. 조성식(1990:831)에서는 ‘onomasiology’에 대해 다음과 같이 뜻풀이를 제시했다.

onomasiology (名義論) (意)

말을 이름(Name)과 의의(SENSE)의 결합체로 볼 경우 이름에서 출발하여 이름과 의의의 대응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를 의미론(Semantics)이라고 한다면, 뜻에서 출발하여 이름과 의의의 상호관계 또는 그 체계를 구명하는 분야를 명의론이라 할 수 있다. 양자는 상보적 관계이고 또한 넓은 의미의 의미론에 속한다. 명의론은 연구방향이 의미론과 다를 뿐, 다루고 있는 성격은 같으므로 독립된 학문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Ullmann 1957:64),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명의론은 의의와 이름의 대응관계를 조사하기 전에 개념 그 자체의 상호관계나 그들 사이에 보여지는 계층적인 체계를 연구하는 것이므로 그 점에서 의미론과는 다른 연구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미의 장이론(Field theory of meaning)이 명의론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조성식(1990)에서는 ‘onomasiology’가 좁은 의미의 의미론과 상보적 관계를 이루지만 넓은 의미의 의미론의 한 영역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의미를 다루는 분야를 의미론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표현론도 의미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⁴⁾

4) 조성식(1990)에는 ‘semasiology’라는 표제어는 제시되지 않았고 ‘semantics’의 뜻

의미론의 입장에서 표현론을 이해한 전통은 표현론적 의미론으로 이어진다. Traugott, E. C.(2006)에서는 언어 변화를 다루는 상보적이며 서로에게 유익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해석론적 접근법으로 형식을 고정시켜 놓고 그 형식에 결합하는 의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grasp’의 의미가 ‘clutch’에서 ‘understand’로 변화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다른 하나는 표현론적 접근법으로 추상적인 대상이나 개념을 고정시키고 그 개념 영역을 가리키는 형식들의 생성이나 소멸 등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UNDERSTAND’라는 의미는 ‘grasp, understand, comprehend’에 의해 표현되게 된다는 것이다.

의미론이나 어휘론의 한 분야나 경향에서 문법론의 영역으로 표현론의 용법을 확대한 것은 표현론적 단어형성 연구라고 할 수 있다.⁵⁾ Štekauer(2001)가 대표적인 표현론적 단어형성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박혜진(2019ㄱ,ㄴ)이 외국의 표현론적 단어형성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명명 대상으로부터 실제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형식화해서 제시했다. 이 모델은 Štekauer(2001:5)의 모델과 조금 다른 모습이기는 하지만 단어 형성 과정을 순서화해서 제시한 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⁶⁾

풀이에는 ‘onomasiology’와 ‘semantics’의 관계에 대한 서술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onomasiology’에 대립되는 용법의 ‘semantics’를 ‘semasiology’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한다.

5) 주로 어휘론의 영역에서 표현론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단어 형성 연구에서 표현론적 접근의 연구가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박혜진(2019ㄴ: 주 13)에서는 단어 형성에 관한 표현론적 접근은 명명 행위의 기저가 되는 필수적 개념 구조(Mark-Base)를 논의한 M. Dokulil과, 단어 형성의 다층적 모델(multi-level model of word-formation)을 제안한 Horecký 등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이후 Dokulil의 표현론적 구조(onomasiological structure)와 Horecký의 언어적 기호의 다층 모델의 영향을 받아 인지-표현론적 관점의 이론을 제안한 Štekauer의 논의가 국내 단어 형성 연구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표현론적 단어 형성 연구의 역사에 대해서는 Štekauer(2006)에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6) 표현론적 단어형성 연구로는 정한데로(2013, 2014, 2015, 2019ㄱ,ㄴ, 2021), 이현근(2016, 2019ㄱ, 2020, 2021, 2022) 등이 있다. 표현론적 언어 연구를 의미에서

단어형성론을 제외하면 외국의 경우 문법론의 다른 분야에서는 표현론적 접근이 활발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어 문법론 분야에서는 박진호(2011) 이후에 표현론적 접근의 문법론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다양한 문법범주에 대해 표현론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나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다양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사전의 정의에서처럼 의미나 기능에서 형식으로 향하는 기술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⁷⁾

표현론적 접근의 문법 연구는 의미에서 형식으로 향하는 연구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형식의 확정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데 반해 의미의 확정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의미에서 형식으로 향하는 연구의 방향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문법론에 대한 표현론적 접근의 연구는 다른 언어의 경우에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아서 연구 방법론에 대한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⁹⁾ 일단 사전의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 의미에서 형식으로 향하는 연구를 시도할

형식으로 향하는 연구의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황화상(2001)도 표현론적 단어형성론 연구에 포함된다.

- 7) 본문에서 ‘표현론’을 언급한 논저는 상당히 많은데 박재연(2014), 가와사키(2016), 심지영(2016), 포연(2016), 박종후(2017), 김경은·이선웅(2017), 장회건(2017), 김태우(2018), 신희성(2018), 최종원·박진호(2019), 최윤지(2020), 이용규(2020), 전문이(2020), 마군문(2022), 최수정(2022) 등이 있다.
- 8) 외국어의 시제 습득을 다룬 Bardovi-Harlig(2000:185)에서도 의미 중심의 연구에서는 잘 정제된 의미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9) 외국의 문법론에서 ‘해석론’이나 ‘표현론’을 명확히 제시하고 논의를 진행한 경우도 찾기 어렵다. Bruckmaier(2017)은 코퍼스 기반 해석론적 통사 분석(corpus-based semasiological-syntactic analysis)을 시도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Mehl(2016, 2018)에서 ‘코퍼스 표현론(corpus onomasiology)’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Bond(2009: 54)에서는 부정의 영역을 나누고 이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을 대응시키고 있다. 이는 표현론적인 입장에서 언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정이라는 의미가 영어에서 어떤 언어형식을 띠고 나타나는지를 기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표현론이나 해석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수 있다. 기존의 한국어에 대한 표현론적 접근은 대부분 이런 기술의 방향의 전환에 따라 연구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의미의 확정이라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현론적 접근에 따른 어휘의미론의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이른바 어휘장이나 의미장 이론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어휘장이나 의미장은 구조주의 의미론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인데 이를 표현론적 연구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의미장 이론은 상위의 개념에 속하는 하위의미들을 구별하고 이들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들을 찾아서 기술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어휘장이 색채 어휘장이나 친족 어휘장이다. 이들은 개념을 구별해서 식별하고 이들 개념을 나타내는 형식을 찾기가 비교적 쉬운 어휘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념은 상하 관계를 확정하기도 어렵고 하위의미들을 구별하고 체계화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의미장에 속하는 의미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한 후 이들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을 찾는 작업을 통해 표현론적 접근의 언어 연구가 가능하다.

용법에 대한 표현론적 연구도 가능하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표현하는 형식들을 찾아 목록화한 후에 이들이 실제 발화 상황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면서 사용되는지를 코퍼스를 기반으로 기술하는 작업이다.¹¹⁾ 단순하게는 개별 형식들의 사용상의 빈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정한 화용론적 맥락에 따른 사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다양한 화용론적 맥락 정보에 따른 사용상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10) 이홍식·이은경(2023:24-32)에서 통사론에 대한 표현론적 접근 방법을 다룬 바 있다. 여기에서도 표현론적 어휘의미론의 방법론을 원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현론적 접근의 어휘의미론은 Geeraerts(2006, 2010, 2018), Geeraerts, Grondelaers and Bakema(1994), Grondelaers, Spelman and Geeraerts(2007)을 참고할 수 있다.

11) 특정한 용법의 빈도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코퍼스에 의미 주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그런 주석 코퍼스를 구축해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Mehl(2016:50)에서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표현론적인 코퍼스 연구가 많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본고에서는 일단 기술의 방향을 의미에서 형식으로 향하는 과정으로 바꾸어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을 찾는 작업에서 시작하기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과거와 관련된 형식을 찾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활용해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을 정리하는 작업만 수행해도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과거라는 의미장을 설정하고 과거라는 의미장의 하위의 미들을 찾아서 확정하는 작업과 이들 각각의 하위의미를 나타내는 형식을 찾아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어에서 과거라는 의미장에 대응하는 형식들의 목록과 하위의미들에 대응하는 형식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과거시제 기술의 표현론적 접근

1. 기존의 시제 연구

박진호(2011)에서는 표현론적 시제 기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시제 연구가 해석론적 접근에 의한 연구인지 표현론적 접근에 의한 연구인지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표현론적 접근에 의한 시제 기술이었다면 표현론적 시제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박진호(2011)은 기존의 시제 연구가 다분히 해석론적 접근에 의한 시제 기술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시제 논의가 적어도 전적으로 표현론적 접근에 의한 시제 연구는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문법론 개론서의 시제 기술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이익섭·채완(1999:267)에서는 “어떤 행위, 사건, 상태의 시간적 위치를 언어적으로 나타내 주는 문법범주를 시제(tense)라 한다.”라고 시제를 정의한다. 의미에서 형식으로 향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는 표현론

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겠-’을 미래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인식하는 주장에 대해 ‘-겠-’이 현재나 과거의 일에도 쓰이는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것을 보면 해석론적 접근의 측면도 보인다. 그럼에도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이 ‘-었-’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어의 시제에서 과거시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보면 표현론적 접근의 경향도 볼 수 있다.¹²⁾

구본관 외(2015)의 시제 기술도 표현론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는-’, ‘-ㄴ-’과 ‘-∅-’를 제시하고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었-’과 ‘-었었-’, ‘-더-’를 제시한다.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형식으로는 ‘-겠-’, ‘-(으)ㄹ 것이-’를 제시한다. 이는 의미로부터 형식으로 향하는 문법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¹³⁾

문법론 개론서에서 시제를 설정하는 과정은 표현론적 접근에 따랐다. 그리고 과거시제 형식들 사이의 의미의 차이를 기술하는 과정은 해석론적 접근을 취했다. 유현경 외(2018) 역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형식을 찾아서 제시함으로써 시제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었-’과 ‘-었었-’, ‘-더-’의 차이를 기술하는 과정에서는 해석론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과거의 의미를 세분해서 하위의미에 해당하는 형식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과거를 표현하는 형식들을 비교해서 의미의 차이를 기술해 내고 있다. 이는 물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하위의미를 설정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매우 사변적인 과정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기존의 형식들을 비교해서 의미의 차이를 찾아내서 기술하는 방식이 훨씬 구체적인 과정이 된다.

시제를 다룬 논저들은 주로 해석론적 입장에서 한국어의 시제와 시제 형태소를 기술했다. 임철성(1991)은 논문의 제목이 ‘현대국어의 시제어미 연구’이다. 시제에 관한 짧은 논의 이후에 개별적인 시제어미에 대한 기술을 시도했다. ‘-았-, -겠-, -더-, -느-’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목

12) 이러한 서술은 이미 이익섭·임흥빈(1983:181-188)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13) 이러한 태도는 고영근·구본관(201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적이 있어서 이들과 시제체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시제체계의 논의가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해서 선어말어미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반해 임철성(1991)은 개별 어미의 의미를 최대한 맥락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포착하고자 했다.

최동주(1995/2015)는 한국어 시제를 통시적 측면에서 기술한 논문이다. 이 논문 역시 기본적인 논의를 먼저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15세기 이후의 시제 체계의 변화를 기술했다. 15세기의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15세기의 시상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표 1〉 15세기 국어의 시상체계

구분		과거	현재	미래
[+상태성]	완료상	ㅅ	ㄴ	리
	비완료상	더		
[-상태성]		더	ㅅ	리

이 논문에서도 형식을 먼저 제시하고 이들 형식들의 시상적 의미를 기술한 후에 시상체계를 수립했다. 상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형식들이 보이는 의미의 차이를 기술하고 이를 상적인 차이로 정리했다.

한동완(1996) 역시 해석론적 연구의 양상을 보인다.

이 연구는 선어말 어미 ‘-았-’, ‘-더-’, ‘-느-’ 등이 이루고 있는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국어의 시제 현상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국어의 시제 범주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을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한동완 1996:7)

시제와 관련되어 논의된 선어말 어미들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한 국어의 시제 체계를 기술하고자 하는 논의라는 점을 서론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이재성(2000)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국어의 시제 현상을 나타내는 비종결어미 ‘-었-’의 의미 분석을 통하여, -었- 이 나타내는 문법 의미가 시제 의미와 상의 의미로 구분되며, 이들 의미를 바탕으로 국어 문법에서 시제 범주와 상 범주의 문법 체계를 세울 수 있음을 보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이재성 2000:1)

선어말 어미 ‘-었-’의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시제 범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수득(2003)에서도 비슷한 서술을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국어 선어말어미 ‘-았/었-, -느-, -겠-, -더-’가 갖는 의미의 다양성을 밝히고 이처럼 다양한 의미 중에서 특정 문장에서 특정 의미로 제한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 해석 규칙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수득 2003:1)

‘-았/었-, -느-, -겠-, -더-’의 의미를 시제의 측면뿐 아니라 상과 양상의 측면에서도 기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며 형식에서 의미로 향하는 연구의 방향은 위에서 언급한 논의들과 같다.

고영근(2004)는 시제를 서법 속에서 다루었다. 먼저 서법과 관련된 선어말어미를 형태 분석 방식에 의해 분석한 다음 각 서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서법에 관한 논의만 보면 먼저 서법의 하위 범주로 직설법, 부정법, 회상법, 추측법이 제시됐다. 이어서 이들 서법이 종결형, 비종결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기술됐다. 조금 큰 범주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의미의 체계를 먼저 제시하고 이들 의미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를 기술한 점에서는 표현론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형식을 먼저 분석해 내고 이들 형식을 서법 체계 속에서 기술한 것이므로 본격적인 표현론적 접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표현론적 접근의 연구라고 할 수는 있겠다.

문숙영(2005/2009)는 시제에 관한 기본적 논의에서 시제의 개념, 상황시, 참조시, 주제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시제 형식의 의미 차원과 사

용 차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절대시제와 상대시제를 구별하고 시제와 인접 범주에 대한 논의를 추가했다. 3장에서는 근문의 시제라는 제목 아래 시제 선어말어미 각각의 의미에 대해 기술했다. 이런 논문의 전개는 해석론적 접근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문숙영(2005/2009)는 어미를 중심에 두고 어미의 의미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국어 시제를 논의하였으므로 형식 중심의 시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해석론적 접근에 의한 시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표현론적 접근의 시제 연구를 표방한 논의는 박진호(2011, 2016) 외에 한국어 교육학 분야의 논문인 황선영(2017)을 들 수 있다. 박진호(2016:115)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한국어교육학에서 표현론적 접근의 연구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이해와 표현은 언어 사용의 두 가지 영역인데 한국어교육은 이해교육과 표현교육으로 나뉘며 표현교육은 말하기교육과 쓰기교육에 해당하게 된다. 표현교육은 결국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태와 의도를 목표언어의 형식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므로 표현론적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황선영(2017)은 박진호(2011)을 인용하면서 표현론적 시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겠-’이나 ‘-(으)ㄴ 것-’이 가지는 기본적 의미는 양태적 의미일 수 있으나, 언어의 시제에 대해 판단할 때는 기호로부터 의미/개념으로 나아가는 해석론적 접근법(semasiological approach)보다는 개념으로부터 기호로 나아가는 표현론적 접근법(onomasiological approach)이 더 중요하다(박진호 2011:292-293). 기호가 가지는 의미는 시간의 흐름과 언중의 사용에 따라 변화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미래 시제 설정도 이와 같은 표현론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한국어에 어떠한 문법적 표현이 미래를 나타낼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지보다는 미래 사건을 나타낼 때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는지 보고, 미래 사건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문법적 표지를 미래 시제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진호(2011)은 시제언어와 비시제언어를 구별할 때 표현론적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때는 필수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이 과거를 나타내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면 과거시제가 있는 언어가 되고 그 언어는 시제언어가 된다. 그러나 미래시제의 설정에서는 필수성이라는 기준 대신에 전형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미래를 나타내는 형식이 필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전형적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형식이 존재한다면 그 언어에는 미래시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언어에 미래시제를 설정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필수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면 대부분의 언어에 미래시제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현론적 접근은 두 가지 방향의 논의가 가능하다. 하나는 의미 대 형식의 관계이고 하나는 의도 대 형식의 관계이다. 이 둘을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렵지만 개념적으로는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시제체계의 문제이고 후자는 시제사용의 문제이다.

한국어에 과거시제가 있는지, 그리고 과거시제의 형식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전자의 작업이다. 그런데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 화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특정한 형식을 취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후자의 작업이다. 황선영(2017)이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 등을 넘나드는 시제 사용의 측면을 살펴본 것은 후자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황선영(2017)은 과거 사태이지만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이 아닌 현재를 나타내는 형식을 사용하는 상황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서 한국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담화나 텍스트를 기반으로 시제의 사용 양상을 살핀 논의로 김정남

14) 시제 형식의 선택에 대한 연구를 강조한 김봉순(2007)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신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인 ‘-었었-’과 ‘-니 바 있-’의 선택에 관여하는 화자의 관점을 연구한 제민경(2013)은 시제 사용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서세정(2009:50-57)에서는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의 사용에서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이 차이를 보이는 것을 작문 분석을 통해 기술했는데, 이 역시 시제 사용 연구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1994)를 들 수 있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허구적 사실을 서술하는 텍스트인데 김정남(1994)는 이때 과거시제 형태와 현재시제 형태를 교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표현론적 접근에 의한 연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허구적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들의 텍스트에서의 차이를 기술했다는 점에서는 표현론적 접근에 의한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다.¹⁵⁾

한국어 학습자의 시상 습득에 관한 연구인 이지혜(2016)에서는 Bardovi-Harlig(2000:12)에 따라 시상 습득 연구를 두 가지로 개관했다. 하나는 의미 중심 연구로, 학습자가 시간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화용적 장치, 어휘적 장치, 형태적 장치를 기술한다. 다른 하나는 형태 중심 연구로, 시제 형태소의 분포는 어떠한가 하는 관점에서, 형태적 장치를 기술한다. 전자는 표현론적 접근에 해당하고 후자는 해석론적 접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지혜(2016)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영화를 보여 주고 그 영화에 대해 얘기하게 하는 실험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시상 습득 양상을 기술하였다. 이지혜(2016)에서는 두 층위의 연구를 모두 시도했는데 시상 형태의 사용 양상도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는 의미로부터 형식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술이므로 표현론적 접근에 따른 시제 연구에 포함될 수 있다.

2. 표현론적 과거 시제 기술

2-1 과거시제의 설정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논의는 해석론적 접근에 의한 연구가 우세하고 표현론적 접근에 의한 연구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본격적인 표

15) 김민영(2012)는 텍스트 종류에 따른 시제 사용 양상을 살핀 연구인데 시제 형식을 고정시키고 이들의 출현을 텍스트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해서 해석론적 접근에 가까운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현론적 접근의 시제 기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본고는 의미에서 형식으로 향하는 기술이라는 표현론적 연구의 원론적인 방법과 표현론적 어휘의미론의 ‘의미장’을 채택해서 한국어 과거시제를 기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의미에서 형식으로 향하는 문법 기술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과거시제를 기술하기로 한다. 그런 다음에 과거의 의미장에 대한 기술을 시도하고자 한다. 과거에 대한 추상적 사유를 통해 과거라는 의미를 더 세분하는 작업은 어려우므로 기존의 연구에 기댈 필요가 있다. 기존 논의에서 제시한 시제 형식들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토대로 한국어의 과거시제의 의미장을 설정하고 이들 의미장의 하위의미에 대응하는 형식들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과거라는 의미를 선정하고 이를 표현하는 형식을 찾기로 한다. 그런데 이미 표현론적 접근과 해석론적 접근의 교차를 통해 다양한 형식의 과거 시제 형식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마치 처음 보는 언어처럼 과거를 표현하는 형식을 찾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태적 시간 표시 장치 중에서도 시상 형태소에 국한해서 시제 범주를 설정한다. 그 밖의 시간 표현 장치는 시제라는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본고에서도 과거를 표현하는 문법 형태소 위주로 과거시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즉 화자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언어적 장치 가운데에서 문법 형태소만을 과거 시제 논의에 포함시키기로 한다.¹⁶⁾

과거를 표현하는 형식은 기존의 논의들을 참고하여 ‘-었-’, ‘-더-’, ‘-있었-’, ‘-었다-’, ‘-은-’, ‘-던-’, ‘-있던-’, ‘-있을-’ 들로 확정할 수 있다.¹⁷⁾

16) 한국어 학습자가 담화를 구성해 내기 위해서는 이른바 시제 형태소만을 학습해서는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어 화자가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장치를 학습해야 목표 언어인 한국어 시간 표현에 대한 학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17) 이필영 외(2009:302)에서는 관형형의 과거 형태로 ‘-던-, -있을-, -(으)나-, -있던’을 제시하고 종결형의 과거 형태로 ‘-었-, -있었-, -더-, -었다-’를 제시했다.

- (1) ㄱ. 철수가 학교에 갔다.
 ㄴ. 철수가 학교에 가더라.
 ㄷ. 철수가 학교에 갔었다.
 ㄹ. 철수가 학교에 갔더라.
 ㅁ. 학교에 간 철수
 ㅂ. 부지런하던 철수
 ㅅ. 학교에 가던 철수
 ㅇ. 학교에 갔던 철수
 ㅈ. 학교에 갔을 철수

‘-있었-’을 ‘-있-’의 공시적인 결합으로 보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 들을 별개의 형식으로 보기로 한다. ‘-던’과 ‘-있던’에서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를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은’의 경우에는 분석할 형식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¹⁸⁾ ‘-은’ 앞에 영형태소를 설정할 수는 있다. 위 예문의 선어말 어미를 시제와 관련해서 분석하면 ‘-있-, -있었-, -더-, -있더-, -∅-’를 분석할 수 있다.

표현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형식의 확인 과정은 해석론적 접근과 다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른바 형태 분석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형태 분석의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형식의 확인 과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표현론적 접근의 과거시제 기술을 시도해 본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형태 분석의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는다.

이 밖에도 반사실적 과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으)르걸’도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에 포함할 수 있다. ‘-(으)르걸’은 ‘-있을걸’로도 나타난다. 둘 다 반사실적 과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18) 관형사형 어미에는 ‘-있던, -던, -은, -있는, -있을, -있었을, -겠는, -을, -있었던’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있는’, ‘-겠는’은 ‘-은’, ‘-을’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 (2) ㄱ. 밥을 먹으라고 할 때 먹을걸.
 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합격했을걸.

‘-을걸’의 경우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를 설정할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에는 ‘있을걸’과의 차이를 기술해 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을걸’은 과거에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반면 ‘-있을걸’은 반사실적 가정을 나타내는 선행절이 있을 때 아쉬움이나 후회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가 ‘-있-’에 의해 유발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정밀한 형태 분석의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¹⁹⁾

과거를 나타내는 이들 어미들의 구체적인 의미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이들이 과거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다. 박진호(2011)의 주장처럼 과거를 필수적으로 나타내는 형식이 존재하면 과거시제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의 수식에 따라 과거시제의 존재가 결정된다.

어떤 형식이 필수적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를 ‘필수적으로’라는 표현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위의 모든 형식이 과거를 필수적으로 나타낸다고 하기는 어렵다. ‘-있-’의 경우에는 완료라는 의미를 추가로 갖는다는 주장도 있으며 ‘-더-’의 경우에는 인식 시점이 과거라는 논의도 있기 때문에 위 형식 모두가 필수적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²⁰⁾

그럼에도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이 필수적으로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는 있다.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이 특정한 형식도 없이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는 없으며 복수의 형식이지만 이들이 모두 한국어에서 과거를 나타

19) ‘-을걸’과 ‘-있을걸’의 차이는 최동주(2009), 이소영(2022)를 참고할 수 있다.

20) 본고에서는 박진호(2016)의 논의를 받아들여 문법 형태소에 대한 다의적 분석의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어의 문법 형태소 분석은 지나치게 단의적 접근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주어진 현상을 하나로 환원하고자 하는 경향이 아닌가 한다. 이홍식·이은경(2017)에서는 비슷한 기능을 갖는 둘 이상의 형태를 교체 관계로 기술하려는 연구 경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을 유의 관계로 분석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널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이들 형식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가 표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적 현재라는 용법의 문제는 여전히 남지만 문법범주의 논의에서 실제 용법 모두를 논의에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역사적 현재는 논의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²¹⁾ 그러면 과거인데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부사절이나 접속절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 철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위 문장에서 ‘먹고’는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이 전혀 없지만 과거 사태를 가리킨다. 필수적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특정 사태를 가리키는 절에 반드시 형식이 나타나야 한다고 이해하게 되면 한국어에서 접속절의 선행절에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어에 과거시제를 설정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에서 과거라는 정보는 후행절의 ‘-았-’에 의해 표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후행절의 ‘-았-’이 선행절의 시제까지 모두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위 문장은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이 필수적으로 나타난 문장의 예외가 되지 않게 된다.

비슷하지만 다른 예가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4) ㄱ. 철수는 아까 밥을 먹고 지금 학교에 간다.

ㄴ. 철수는 아까 밥을 먹었고 지금 학교에 간다.

위 문장에서 선행절은 과거를 나타낸다. 물론 현재와 매우 가까운 과

21) 사용과 의미를 구별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문숙영(2009)는 시제 논의에서 사용과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에 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거가 될 것이다. 이때 과거 해석은 후행절에 선행하는 사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행절의 과거 해석은 절대 시제 해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후행절 사건시를 기준으로 한 상대시제 해석에 의한 것이다. 현재보다 이전은 과거이므로 상대시제에 의한 과거이지만 절대시제로 보아도 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과거 시제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화자가 선행절이 과거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선행절을 구성했다기보다는 후행절 사건보다 선행하는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 선행절을 구성한 것이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시제 논의에서는 위와 같은 문장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화자가 선행절이 과거라는 점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먹었고’와 같은 과거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전형적이다.²²⁾

표현론적 접근법에 따라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들이 존재하고 그런 점에서 한국어에는 시제범주가 표현론적인 입장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박진호(2011:294)에서는 다음과 같이 ‘-었-’이 과거시제 표지라고 주장한다.

한국어 ‘-었-’은 시제와 거리가 있는 주변적 용법들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사태의 발생 시점이 발화시 이전임을 나타내는 용법, 즉 과거 표지로서의 용법이 가장 기본적인 용법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었-’은 과거 표지이다) 또한 한국어에 시제가 있는지 없는지, 즉 한국어가 시제 언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정 문법요소에 대해 해석론적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거 사태를 표현할 때 과거 표지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가를 표현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런 고려를 한 결과 ‘-었-’은 과거시제 표지이고 한국어는 시제 언어임이 분명하다.

22) 본고에서는 주로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를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지혜(2016)처럼 과거를 나타내는 장치 전체에 대한 표현론적 연구도 가능한데 본고는 형태적 장치에 국한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표지가 ‘-았-’ 하나라는 주장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았-’을 과거 표지의 대표로 내세운 것이 아닌가 한다. ‘-았-’ 이외에도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들은 더 있지만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는 것이 ‘-았-’이라는 점은 분명하므로 ‘-았-’을 한국어의 대표적인 과거시제 어미라고 할 수 있다.

표현론적 관점에 따라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만을 찾는 경우에는 해당 형식이 다른 기능을 갖는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언어에서 과거를 나타내기도 하고 현재를 나타내기도 하는 형식이 있을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더-’가 그런 양상을 보인다.²³⁾ 그런데 ‘-더-’가 사용된 많은 문장은 당연히 과거의 사실에 대한 과거에서의 깨달음, 새로 알게 된 일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과거의 어느 순간에 현재나 미래의 사건에 대한 깨달음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나의 형식이 다양한 용법을 가지는 것은 언어에서는 빈번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용법 모두를 대등하게 간주하고 해당 형식의 기능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더-’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나타낼 수 있다.²⁴⁾ 그러나 어떤 형식의 기능을 일차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주변적인 기능으로 나눈다면 ‘-더-’의 경우는 과거 사태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

23) 물론 ‘-았-’도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나 미래에 사용된 경우는 ‘-았-’의 부차적인 기능이라고 하기도 한다.

24) 박진호(2011:각주 1)에서는 ‘내일은 영이가 발표를 하더라’와 같은 문장이 미래 사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정된 미래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때 ‘예정된 미래’는 ‘미래’가 아닌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정된 미래나 추측된 미래, 확정된 미래 등은 모두 미래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추측된 과거는 과거에 속하고 화자가 확신하는 과거 역시 과거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시제 범주에 의해 지시되는 사태는 시간의 어떤 구획에 속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깊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2 과거의 의미장

구조적인 예외를 배제한다면 한국어에는 과거를 필수적으로 나타내는 형식이 존재하므로 과거시제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표현론적 접근의 과거시제 논의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어휘의미론의 논의를 문법범주 논의에 적용해서 과거라는 의미가 하위의미들로 나누어질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한국어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여러 형식들을 제시했는데 이들이 모두 동의 관계에 속할 가능성은 낮다. 형식들 사이에 의미의 차이가 있고 이들 의미의 차이를 ‘과거’의 의미장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의미에서 형식으로 향하는 표현론적 시제 기술은 의미의 확정이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앞서서도 지적한 것처럼 어려운 작업이다. 시제 습득에 관한 논의인 이지혜(2016:19)에서 지적했듯이 의미 중심의 연구에서는 누구나 동의할 만한 의미적 개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시간 개념을 거울로 삼아 그 개념이 학습자의 언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의미적 개념이 주어지지 않으면 관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라는 개념은 쉽게 동의할 수 있지만 ‘과거’를 다시 더 나누어 하위 개념을 설정하는 작업은 객관적인 성격을 띠기가 어렵다.

기존 연구에 대한 서술에서 언급한 것처럼 표현론적 연구와 해석론적 연구가 따로 성립해 온 것이 아니라 일부는 표현론적 연구에 해석론적 연구가 섞여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형식에 대한 해석론적 연구를 통해 제시된 의미들을 종합해서 과거의 하위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²⁵⁾

25) 시제와 관련된 선어말 어미에 관한 연구는 개별 선어미가 보이는 다양한 용법을 하나의 의미로 환원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고에서는 박진호(2016:1, 2)의 다의적 입장을 받아들여 선어말 어미가 보이는 다양한 용법을 통해 과거의 의미장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송병학(1980)에서는 ‘-있-’의 의미를 ‘과거의 사실’과 ‘인식적 소원성’으로 보았다. 김차균(1985)에서는 ‘-있-’의 기능을 ‘과거’로 보았으나, 서정수(1990)에서는 ‘-있-’의 의미 기능을 ‘과거 상태, 과거에서 비롯되는 상태, 과거 완결상, 과거 진행상, 과거 반복상, 현재 완결상, 현재 결과상, 미래 완결 및 결과상’으로 제시했다. 나카무라 마유(1999)에서는 ‘-있-’의 기본적 기능이 ‘일반상과거’이며 맥락에 따라 ‘동작성완료, 상태성완료, 상태상’이라는 의미 기능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송상희(2009)에서는 ‘-있-’의 기본 의미로 ‘과거’를 제시하고 파생 의미로 ‘현재, 미래, 완료, 미완료, 지속’을 제시했다. 최규수(1983), 이성영(1994), 문숙영(2009) 및 양운비(2009)도 ‘-있-’의 기본 의미를 ‘과거’로 보고 다른 의미는 기본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로 보았다. 오충연(2007)에서는 ‘-있-’이 ‘완망’이라는 상황 인식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김민정(2011)은 ‘-있-’이 기준시에 대해 사건의 시작점을 선행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서정수(1990:86-96)에서는 ‘-있었-’의 의미를 ‘과거 상태, 과거 진행상, 과거 반복 또는 습관, 과거 완결, 과거 완결 상태, 불확정 과거’로 기술했다.²⁶⁾ 박진호(2016_L)에서는 ‘-있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²⁷⁾

- ① 과거에서의 과거(past in past): 과거 시점보다 앞선 시점에 일어난 사태
- ② 과거에서의 완료(perfect in past): 과거 기준점에서 어떤 결과 상태가 성립함.
- ③ 과거 사태의 결과 취소(result cancellation, cancelled result): 과거/완료 표지를 1개 사용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의미 효과(과거 사태의 결과상태가 발화시에서 성립됨)를 취소함. 유계 술어(telic predicate)와 결합 시 나타나는 의미 효과.²⁸⁾

26) 이남순(1994)와 같이 ‘-있었-’의 의미를 하나로 환원해서 기술하는 논의들도 있으나 최대한 다양한 하위 의미를 통해서 과거의 의미장을 설정하고자 한다.

27) 조오현(1995)에서는 ‘-있었-’의 용법을 ‘과거, 대과거, 단절, 지속’으로 기술했다.

- ③' 틀과거(frame past):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사태. 그러나 발화시에는 일어나지 않음. 무계 술어(atelic predicate)와 결합 시 나타나는 의미 효과
- ④ 먼 과거(remote past): 발화시에서 멀리 떨어진 과거 시점에 일어난 사태
- ⑤ 과거의 주목할 만한 사태: 과거+의외성(mirativity), 과거에서의 hot news(과거+hot news perfect).
- ⑤' 과거의 강조.
- ⑥ 추리를 통해 알게 된 과거 사태: 과거+추리의 증거성(inferential evidentiality) 'apparently'
- ⑦ 반사실적 과거(counterfactual past): 반사실적 과거(조건절)
- ⑦' 반사실적 과거(귀결절).
- ⑦'' 반사실적 과거(복문). 주절 동사에 붙어, 내포절 사태가 반사실적 과거임을 나타냄.
- ⑧ 가까운 과거(recent past), 오늘 과거(hodiernal past)
- ⑨ 과거와 등가
- ⑩ 과거 경험(experiential past): 주어의 지시대상이 과거에 했던 경험에 대해 발화시에서 초점을 두고 주목함.²⁹⁾

‘-었-’이나 ‘-었었-’에 대한 논의들에서 제시한 세부적인 의미들은 ‘과거’의 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이를 나타내는 형식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과거’라는 의미를 더 세분하는 기준의 설정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과거 진행’은 ‘과거’의 하위 의미인가.

28) 문숙영(2003)에서는 ‘-었었-’을 대과거 시제 형태로 보았으며 ‘-었었-’이 보이는 과거 단절의 의미는 함축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박진호(2016_나)은 과거 단절의 용법이 ‘-었었-’의 의미로 굳어진 것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박진호(2016_나)에서 제시한 ‘-었었-’의 용법을 통해 과거의 의미장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29) 성기철(1974)에서는 ‘-었었-’을 두 개의 ‘-었-’으로 나누고 첫 번째 ‘-었-’은 과거 시제, 두 번째 ‘-었-’은 경험을 나타내는 서법의 형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영주(1990)에서는 ‘-었었-’을 양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발화내용을 기정 사실화하거나 굳은 믿음의 신념을 나타내는 형태로 파악했다.

‘과거 진행’은 시제와 상의 결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은 과거의 의미를 세분할 때 제외해야 한다. 그러면 양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와 관련된 의미가 될 텐데, ‘증거성, 의외성, 새로 앓’ 등을 ‘과거’에서 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상과 양태의 의미를 빼고 나면 과거의 하위의미라고 할 만한 것은 많지 않다. 위에서 제시했던 ‘-었-’과 ‘-었었-’의 의미들 중에서 ‘과거’라는 시제의 의미만을 추려보기로 한다. 그러면 ‘과거’의 하위의미는 ‘단순 과거, 가까운 과거, 주목할 만한 과거, 과거 경험, 먼 과거, 과거에서의 과거, 단절과거’ 등이 될 것이다.³⁰⁾

그런데 ‘주목할 만한 과거’를 과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주목할 만한 과거를 표현하는 형식은 ‘-더-’일 것이다. ‘-더-’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는데 시제 형태소로 보는 논의와 양태 형태소로 보는 논의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증거성을 양태에 속하는 의미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증거성을 시제 논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목할 만한 과거’라는 의미를 설정한다면 ‘-더-’를 시제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본고의 논의가 표현론적 접근에 따라 시제를 기술하는 것이므로 ‘-더-’의 의미가 무엇이나 하는 것은 부차적인 논의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주목할 만한 과거’라는 과거의 하위의미를 설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의미의 설정을 위한 독자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기보다 그러한 의미를 표현하는 형식의 존재가 더 확실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의미를 표현하는 형식의 존재와 그 존재의 일차적인 기능이 해당 의미일 경우에 해당 의미의 설정이 근거를 갖게 된다.

한국어에서 주목할 만한 과거를 표현하는 독자적인 형식이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그러한 형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가 포함된 문장에서 그러한 의미를 포착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30) 성기철(1974)에 따르면 ‘경험’은 양태에 속하게 되므로 ‘과거’의 하위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5) 철수가 학교에 가더라.

화자가 과거의 사실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럼에도 그러한 느낌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 (6) ㄱ. 이번 시험에서 내가 일등이더라
 ㄴ. 이번 시험에서 내가 일등했어.
 ㄷ. 이번 시험에서 내가 일등이야.

‘-더-’가 있는 문장만이 주목할 만한 과거를 표현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러한 의미는 맥락에 의존해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주목할 만한 과거라는 하위 의미를 설정하기는 어렵다.

인식시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새로 앞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과거에서의 새로 앞이라고 했을 때 새로 앞은 양태에 속하지만 과거라는 시간 개념은 시제에 속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서의 새로 앞은 양태의 하위 의미일 수도 있고 시제의 하위 의미일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시제와 상을 합쳐서 논의하지 않았으며 시제와 양태를 하나의 범주로 보지도 않았다. 일단 시제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양보한다면 ‘인식시’ 논의를 시제에 포함할 수는 있다. 과거 사태를 나타내는 것이 과거시제이겠지만 과거 인식을 나타내는 것도 과거시제라고 한다면 과거의 하위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야 한다. 사태의 과거와 인식의 과거. 사태의 과거는 가까운 과거, 먼 과거, 단절 과거 정도일 수 있다. 인식의 과거를 더 나눈다면 ‘과거 사태에 대한 과거의 인식’, ‘과거에서의 과거 사태에 대한 과거의 인식’이 가능할 것이다.³¹⁾

31) 익명의 심사위원은 본고에서 제시한 과거의 하위 의미들이 (1) 사태의 과거 : 인식의 과거, (2) 사실적 과거 : 반사실적 과거, (3) 과거 : 과거에서의 과거, (4)

단순 과거 영역은 ‘-었-’이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7) ㄱ. 철수가 집에 갔다.
- ㄴ. 철수가 잤다.
- ㄷ. 철수가 푹푹했다.

그런데 ‘-었-’이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었었-’이 사용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8) ㄱ. 오늘 보니 영희는 참 말랐구나. 바지가 헐렁하네.
- ㄴ. 이 사진을 보니 영희는 참 말랐었구나.(문숙영 2003:64)
- (9) ㄱ. 너 아직도 모르겠니? - 아니, 이제 알았어.
- ㄴ. 넌 아직 몰랐니? - 응? 나도 알았었어. 잠깐 깜빡했어.
- (문숙영 2003:65)

위 문장에서 ‘-었었-’은 과거 상태를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처럼 주로 형용사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에 ‘-었-’이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었었-’을 사용해 과거의 사태임을 분명히 표시한다.

관형사절의 경우에는 ‘-은’과 ‘-던’이 과거 사태를 지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10) ㄱ. 학교에 간 철수
- ㄴ. 푹푹하던 철수

(지속) 과거 : 단절 과거와 같은 대립을 보이므로 이들 과거의 하위 의미를 위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몇몇 의미들의 대립은 확인이 가능하나 이들을 분류해서 위계화하기에는 좀 더 정밀한 분류와 위계화를 위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여 이 문제는 나중의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동사인 경우에는 어간에 ‘-은’이 결합하고 형용사인 경우에는 어간에 ‘-던’이 결합한다. 과거에서의 과거는 ‘-있었-’으로 표현된다.

- (11)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키가 작았었는데 대학교 가서 키가 부쩍 컸지.(문숙영 2003:69)

대학교 때는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인데 고등학교 때는 그보다 더 앞선 시점이기 때문에 ‘-있었-’을 썼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있었-’의 사용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 (12)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키가 작았는데 대학교 가서 키가 부쩍 컸지.

‘-있-’이 결합해도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이때 ‘-있-’이 과거에서의 과거를 표현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발화시보다 과거를 나타내는 것일 뿐 문맥에 의해서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과거인 것을 청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있-’ 자체가 과거에서의 과거를 나타냈다고 볼 수는 없다.

- (13) 나는 대학교 가서 키가 부쩍 컸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작았었는데.(문숙영 2003:69)

도치된 문장에서는 ‘-있었-’의 쓰임이 더 자연스럽다. 이는 과거에서의 과거가 문맥에 의해 표현되지만 문맥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분명하게 ‘-있었-’을 사용해서 과거에서의 과거를 표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표현론적 접근을 취하는 본고의 관점에서는 과거에서의 과거를 표현하는 데 ‘-있-’이 사용된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의미에서 형식으로 향한다면 과거에서의 과거가 ‘-있-’에 의해 표현된다는 점을 기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 문장은 문숙영(2009:50)에서 가져온 것이다.

- (14) ㄱ. 국무조정실장이 과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실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조 실장은 지난 90년에서 91년 내무부 지방행정과장 시절, 일선 시도로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1천40만원을 받은 사실이 93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의정부 시장으로 있던 조 실장의 해임을 내무부에 요구해 조 실장은 시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 ㄴ. 김정일 위원장이 2년 만에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낸 2차 세계대전 승리 60돌 기념의 달로 함께 받았습다.³²⁾ 김 위원장의 러시아 대사관 방문은 2000년 이후 4번째로 중국 대사관을 한 차례만 찾은 것과 비교해 의미있는 행보로 보입니다. 북한은 더구나 지난 달 핵무기 보유 설명도 러시아측에만 미리 알려줬습니다.

(14)에서는 과거 사건보다 이전의 사건을 표현하는 데 ‘-었-’이 사용되었다.³³⁾

단절 과거(과거 사태의 결과 취소)는 ‘-었었-’에 의해 표시된다. 관형사절에서는 ‘-었던’에 의해 표시된다.

- (15) ㄱ. 철수는 결혼했었다.
ㄴ. 철수는 집에 갔었다.
ㄷ. 결혼했던 철수

관형사절의 ‘-었더-’는 주절에서의 ‘-었더-’와는 달리 ‘-었었-’의 의미를 나타낸다.

32) 기사 중간에 ‘기념의 달’로 적혀 있지만 실제 기자의 말을 들어 보면 ‘기념메달’이라고 들린다.(https://imnews.imbc.com/replay/2005/nwdesk/article/1931329_30781.html)

33) ‘-은 바 있다’와 같은 통사 구성에 의한 표현도 가능하지만 통사 구성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이 반사실적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특정한 연결어미의 경우에만 조건절에서 반사실적 과거가 표현된다. 그러한 조건절에서 반사실적 과거는 ‘-었-’에 의해 표현된다. 귀결절 역시 ‘-었을 텐데’와 같은 ‘-었-’이 결합한 통사적 구성으로 반사실적 과거를 표현한다. 종결어미 그 자체로 반사실적 과거를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문장에 따라서는 ‘-었-’이 결합할 수도 있다.

(16) ㄱ. 철수가 학교에 갔더라면 영희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ㄴ. 아까 점심을 먹을걸.

ㄷ. 봄에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수확을 했을걸.

‘-더라면’은 ‘-었-’과 결합해서 반사실적 과거를 표현하므로 한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가 그 자체로 반사실적 과거를 표현하지는 않는다. 다만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종결어미가 그 자체로 반사실적 과거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특이하다.

인식시를 설정하게 되면 인식시의 과거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더-’를 설정할 수 있다.

(17) 철수가 학교에 가더라

과거의 인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게 되면 이원적인 과거의 의미장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를 사태의 과거와 인식의 과거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더-’는 과거의 인식을 나타내는 형식이 된다.

과거에서의 현재나 미래는 ‘-더-’에 의해 표현되며 과거에서의 과거는 ‘-있더-’에 의해 표현된다.

(18) ㄱ. 철수가 학교에 갔더라

ㄴ. 꽃이 다 졌더라.

위 문장 역시 인식시의 과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식시에서의 과거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인식시와 사건시의 이분 체계가 한국어 과거시제 체계가 아닌가 한다.

IV. 맺음말

최근에 표현론적 접근에 의한 문법 기술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시제에 대한 표현론적 접근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해 보았다. 표현론적 문법론의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표현론적 어휘의미론의 방법론을 한국어 과거시제 논의에 적용해 보았다.

의미에서 형식으로 향하는 문법 기술의 측면에서 한국어 과거시제를 기술했으며, 과거를 표현하는 형식들을 확인해서 목록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다양한 형식들이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형식에는 통사적 구성에 따른 차이에 의한 것들도 있었고 상이나 양태의 측면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형식들도 있으나 과거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과거라는 의미를 더 나누어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현론적 어휘의미론에서는 의미장을 설정해서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하위의미를 확인하고 이들을 표현하는 형식을 찾아서 기술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본고에서는 ‘과거’의 하위의미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았다. 과거시제의 하위의미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과 양태의 의미는 배제하였다.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한 과거의 하위의미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순과거: -았-, -었었-, -은-, -던

단절과거: -었었-, -었던

과거에서의 과거: -있었-, -있-

인식시의 과거: -더-

반사실적 과거: -았-, -있었-(조건절), -었-, -을걸(귀결절)

과거 사실에 대한 과거의 인식: -있더-

기본적으로 시제 연구는 표현론적 접근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 구분에만 집중해서 각 시제의 하위 의미를 나누는 것은 해석론적 접근에 의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특정한 시제 형태소의 용법을 정밀하게 기술할 때 과거라는 시제 의미 외에 추가적으로 이들 형태소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용법을 기술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표현론적 입장에서 과거를 어떻게 세분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았다. 표현론적 연구의 어려움은 의미의 확정과 기술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의미를 세분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론의 확보에 따라 표현론적 문법 연구의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의미 대 형식의 관계뿐만 아니라 의도 대 형식의 관계가 기술될 필요가 있다. 유사한 과거의 의미를 표현하는 다양한 형식들을 찾아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에서 어떤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되는지를 다양한 코퍼스를 통해 기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화 장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부착된 코퍼스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가와사키 케이고(2016), 「중세한국어 감동법 연구 - ‘깨달음’과 ‘복수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영근(2004),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 고영근·구본관(201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김경은·이선웅(2017), 「한국어 교육을 위한 주제와 초점의 이론적 고찰 -‘은/는’과 ‘이/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49-81.
- 김민영(2012), 「텍스트 유형에 따른 한국어의 시제 기능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2011), 「현대국어 ‘-었-’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순(2007), 「국어교육에는 어떤 문법이 필요한가: 시제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26, 한성어문학회, 447-466.
- 김정남(1994), 「현대 소설의 지문에 나타나는 시상의 양상과 기능」, 『텍스트언어학』 1, 텍스트언어학회, 317-340.
- 김차균(1985), 「-았- 과 -었- 의 의미와 상」, 『한글』 188, 한글학회, 3-64.
(김차균(1990)에 재수록)
- 김차균(1990), 『우리말 시제와 상의 연구』, 태학사.
- 김태우(2018), 「{-습-}의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카무라 마유(1999), 「현대 한국어의 ‘-었-’의 용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균몽(2022), 「한·중 동태적 장소 표시 방법 대조 연구 - 표현론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 『한중언어문화연구』 65, 한국중국어언어문화

- 연구회, 107-138.
- 문숙영(2003), 「대과거 시제와 ‘-있었-’」, 『어문연구』 31:4, 한국어문교
육연구회, 59-83.
- 문숙영(2005/2009), 『한국어의 시제 범주(국어학총서 66)』, 태학사.
- 문숙영(2009), 「시제의 의미 및 사용과 관련된 몇 문제」, 『한국어학』
43, 한국어학회, 1-27.
- 박재연(2014), 「한국어 종결어미 ‘-구나’의 의미론」, 『한국어 의미학』 43,
한국어 의미학회, 219-245.
- 박종후(2017), 「한국어에서 사태구조의 유형과 해석」, 연세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
- 박진호(2016ㄱ), 「단의와 다의: 문법화와 유형론의 관점에서」, 『윤평현
선생 정년퇴임기념논총 2: 국어의미론의 심화』, 도서출판 역락,
189-217.
- 박진호(2016ㄴ), 「‘-있었-’의 단절과거 용법에 대한 재고찰 -함축의 관
습화와 유형론의 관점에서-」, 『한글』 311, 한글학회, 89-121.
- 박혜진(2019ㄱ), 「표현 중심 단어 형성 교육 연구를 위한 시론」, 『문법
교육』 35, 한국문법교육학회, 163-195.
- 박혜진(2019ㄴ), 「표현론적 관점의 단어 형성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세정(2009), 「통사적 숙달도 진단을 통한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발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수(1990), 『국어문법의 연구 I』, 한국문화사.
- 성기철(1974), 「경험의 형태 -있- 에 대하여」, 『문법연구』 1, 문법연구
회, 237-269.
- 송병학(1980), 「{-있}의 의미 분석」, 『언어』 1.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55-66.
- 송상희(2009), 「과거 시제 ‘-있-’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송영주(1990), 「‘-있었-’과 ‘-더-’의 비교」, 『한국언어문학』 28, 한국언어학회, 441-458.
- 신희성(2018), 「양태 범주의 문법 교육적 위상 제고를 위한 시론」, 『국어교육학연구』 53:4, 국어교육학회, 5-47.
- 심지영(2016), 「한국어 결과구문 연구 - 한·중 대조 및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운비(2009), 「한국어 시제 형태소 ‘-었-’의 기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충연(2007), 「‘-었-’에 대하여 - 인지·생성적 문법범주 설정에 대한 연구 -」, 『어문연구』 3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15-137.
-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본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 이남순(1994), 「‘있었’고」, 『진단학보』 78, 진단학회. 377-393.
- 이성영(1994), 「‘-었-’의 의미와 화용」, 『국어학연구』, 태학사.
- 이소영(2022), 「‘-을걸’의 의미와 문법 지위에 대한 단상」, 『형태론』 24:1, 형태론, 150-181.
- 이수득(2003), 「국어 선어말어미의 의미와 해석에 관한 연구 - 시제, 상, 양상성을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규(2020), 「중세 한국어 부사격 조사 비실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 문법론』, 학연사.
- 이익섭·채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재성(2000), 「국어의 시제와 상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민·배영남(1987), 『(개정증보판) 언어학사전』, 박영사.
- 이지혜(2016), 「한국어 ‘시제와 상’ 습득 양상 연구 - 구어를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필영 · 전은진 · 안정호(2009), 「영아의 시제 · 상 형태 습득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295-326.
- 이현근(2016), 「합성어와 Onomasiology」, 『현대영어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67-70.
- 이현근(2019ㄱ), 「영어 합성어와 한국어 합성어의 개념과 개념화」, 『현대영어영문학』 63:1,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155-180.
- 이현근(2019ㄴ), 「명칭론(Onomasiology)과 어의론(Semasiology)」, 임지룡 외(2019), 『인지언어학 탐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699-722.
- 이현근(2020), 「‘N-Ved N’ 형 영어 합성어와 한국어 대응형」, 『현대영어영문학』 64:2,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61-281.
- 이현근(2021), 「‘N-Ving N’ 형 영어 합성어와 한국어 대응형」, 『현대영어영문학』 65:1,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127-146.
- 이현근(2022), 「영어 합성 형용사와 한국어 대응형」, 『현대영어영문학』 66:1,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176-196.
- 이홍식 · 이은경(2017), 「교체와 유의관계」, 『한국어학』 77, 한국어학회, 227-253.
- 이홍식 · 이은경(2023), 「통사론에 대한 표현론적 접근에 대하여」, 『국어학』 108, 국어학회, 3-43.
- 임철성(1991), 「현대국어의 시제어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희견(2017),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에 대한 연구 - 한 · 중 대조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문이(2020), 「한국어 양태의 정형성 및 유형에 관한 인지언어학적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한데로(2013), 「명명 과제(naming task)를 기반으로 한 임시어의 형태론 - 도구 명사를 중심으로 -」, 『국어학』 68, 국어학회, 367-404.
- 정한데로(2014), 「임시어에 관한 몇 문제」, 『국어학』 71, 국어학회, 61-91.
- 정한데로(2015), 「단어 형성 과정의 개념화와 언어화 - 19세기 말~20

- 세기 초 자료의 의의 -, 『언어와 정보 사회』 24,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5-158.
- 정한데로(2019-), 「명명 과제를 활용한 단어 형성의 개념화 · 언어화 연구 - 동일 화자의 반복 조사를 중심으로 -, 『국어학』 90, 국어학회, 173-200.
- 정한데로(2019-), 「표현론적 접근과 단어형성론, 『어문연구』 47: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17-144.
- 정한데로(2021), 「합성명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국어학』 99, 국어학회, 421-466.
- 제민경(2013), 「텍스트의 장르성과 시간 표현 교육: 신문 텍스트에서 ‘-었었-’과 ‘-ㄴ 바 있-’의 선택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4, 텍스트언어학회, 179-206.
- 조성식(1990), 『영어학사전』, 신아사.
- 조오현(1995), 「‘았었’의 의미, 『한글』 227, 한글학회, 129-150.
- 최규수(1983), 「우리말 상, 시제, 법 구조 시론: ‘었’, ‘었었’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 국어국문학회, 143-164.
- 최동주(1995/2015), 『국어 사상체계의 통시적 변화 (국어학총서 27)』. 태학사.
- 최동주(2009), 「종결어미 ‘-르길’의 기능과 문법적 특성, 『국어학』 54, 국어학회, 225-250.
- 최수정(2022), 「한국어 유의 문법 교육을 위한 의미 중심 문법항목 범주화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지(2020), 「과연 한국어의 격조사는 초점 표지인가 - ‘이/가’, ‘을/를’을 중심으로 -, 『형태론』 22:2, 형태론, 334-371.
- 최종원 · 박진호(2019),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를 나타내는 ‘~려면 ~어야 하-’ 구문, 『언어와 정보 사회』 38,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03-334.
- 포연(2016), 「한국어의 구어 문말 형식 ‘-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동원(1996), 『국어의 시제 연구(국어학총서 24)』, 태학사.

황선영(2017),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습득 연구 - 직시와 직
시적 투사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황화상(2001), 『국어 형태 단위의 의미와 단어 형성』, 월인.

Bardovi-Harlig(2000), *Tense and aspec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Form, meaning, and use*, Oxford: Blackwell.

Bond, O.(2009), “mapping negation in conceptual space,” *Proceedings of conference on language documentation & linguistic theory 2*, ed. by P. K. Austin, O. Bond, M. Charette, D. Nathan & P. Sells, London: SOAS, 51-60.

Brown, K.(ed.)(2006),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2nd edition), Oxford: Elsevier.

Bruckmaier, E.(2017), *Getting at get in world Englishes: A corpus-based semasiological-syntactic analysis*, Boston: De Gruyter Mouton.

Geeraerts, D.(2006), “Onomasiology and lexical variation,” *Encyclopedia of language & Linguistics*(2nd edition), ed. by K. Brown, Oxford: Elsevier Ltd., 37-40.

Geeraerts, D.(2010), *Theories of Lexical Seman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eeraerts, D.(2018), *Ten Lectures on Cognitive Sociolinguistics*, Leiden: Brill.

Geeraerts, D., S. Grondelaers and P. Bakema(1994), *The Structure of Lexical Variation: Meaning, Naming, and Context*, New York: Mouton de Gruyter.

Grondelaers, S., D Speelman and D. Geeraerts(2007), “Lexical variation and change,”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ed.

- by D. Geeraerts & H. Cuycke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988-1011.
- Mehl, S.(2016), “Corpus onomasiology: A study in World Englishes,” Doctoral thesis, UCL(University College London).
- Mehl, S.(2018), “Corpus onomasiology in world Englishes and the concrete verbs and give,” *World Englishes* 37:2, 185-206.
- Štekauer, P.(2001), “Fundamental Principles of an Onomasiological theory of English word-formation,” *Onomasiology Online* 2, 1-42.
<<http://www1.ku-eichstaett.de/SLF/EngluVglSW/OnOn2.htm>>
- Štekauer, P.(2006), “An Onomasiological theory of word-formation,” ed. by K. Brown, *Encyclopedia of language & Linguistics*(2nd edition), Oxford: Elsevier Ltd., 34-37.
- Traugott, E. C.(2006), “Semantic change: bleaching, strengthening, narrowing, extension,” ed. by K. Brown, *Encyclopedia of language & Linguistics*(2nd edition), Oxford: Elsevier Ltd., 124-131.
- Ullmann, S.(1957), *The Principles of Semantics: A Linguistic Approach to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 Zauner, A.(1903), “Die romanischen Namen der Körperteile: eine onomasiologische Studie,” *Romanische Forschungen* 14, 339-530.

❖ ABSTRACT

On the Onomasiological Approach to Past Tense in
Korean.

Yi, Hongshik
Sookmyung Women's University

Yi, Eungyeong
Hongik University

In this study, we adopted an onomasiological approach to analyze the Korean past tense, moving from meaning to form. We identified and catalogued the forms that express the past; various forms were used to express the past. Some of these forms were due to differences in syntactic construction, while others showed differences in aspects or modality.

We examined whether the meaning of 'past' could be further subdivided. In representational lexical semantics, a semantic field is established to identify sub-meanings belonging to the same concept. In this paper, we attempted to establish sub-meanings of the past. The results of subdividing the meaning of the past, excluding the meanings of aspect and modality, are as follows: Simple Past: -eoss-, -eosseoss-, -eun-, -deon. Discontinuous Past: -eosseoss-, -eossdeon. Past in the Past: -eosseoss-, -eoss-. Past of Perception Time: -deo-. Counterfactual Past: eoss-, -eosseoss-(protasis), -eoss-, -eulgeol(apotasis). Past Recognition of Past Facts: -eossdeo-

Keywords: Past Tense, Onomasiology, Semasiology, Semantic Field

■ 논문투고일 : 2024. 01. 10

■ 심사완료일 : 2024. 01. 31

■ 게재확정일 : 2024. 02. 06